

대했거든. 그는 이 섬에 와서 그녀를 포르투기에 남겨둔 채 배를 타고 마다가스카르로 떠났네. 거기서 흑인 노예를 몇 명 사서 재빨리 이곳으로 돌아와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요량이었지. 그는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10월 중순 무렵 마다가스카르에 내렸고,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행성 열병에 걸려 죽었다네. 마다가스카르에서 연중 절반 동안이나 기승을 부리는 이 열병이 이곳을 식민지 삼아 정착하려는 유럽 여러 나라를 인제까지고 방해할 걸세. 이국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, 그가 챙겨왔던 옷가지며 물건들은 그가 죽은 뒤 뿔뿔이 흩어져 없어져버렸다네. 프랑스 섬에 남겨졌던 그의 아내는 좋은 평판도, 누구 하나 자신의 신분을 보증해줄 사람도 없는 나라에서 임신한 과부 신세가 되어 버렸고, 그나마 가진 재산이라고는 흑인 여종 한 명이 전부였어. 그래도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가 죽고 나자, 그제 누구든 남자에게는 어떤 도움도 청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으니, 불행이 그녀에게 용기를 준 셈이지. 그녀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작은 땅 한구석을 얻어 여종과 함께 농사를 지어보기로 했다네.

무인도와 다를 바 없는 섬이어서 땅이라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차지해도 될 정도로 넘쳐났지만, 그녀는 가장 비옥한 지대나 교역에 가장 유리한 지대는 택하려 들지 않았네. 그보다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산